

## [2024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공식초청작 결과발표

‘2024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공식초청작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겨울축제에 신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 공식초청작 선정 결과

단체명	공연명	대표자명
64J(줄)	목림삼(木林森)	박상현
극단 불한당들의 세계사	원테이블 식당	오지연
신비한 움직임 사전	막대뚝뚝 피지컬 <빨난 오니>	윤희균
움직이는 그림자 여행단	와그르르르 수궁가	손상희
일장일판 컴퍼니	줄로하는 공연	이대열
창작조직 성찬파	어둑시니	박성찬
햇살놀이터	고래바위에서 기다려	권제인

※ 단체명 가나다순 정렬

### ■ 심사 총평

#### 총평

2024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공식초청작이자 제32회 서울 어린이연극상 후보작 공모에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응모작은 모두 54편으로 연극, 인형극, 서커스, 뮤지컬, 전통연희,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어린이청소년극이 참가신청을 해 왔습니다. 주제와 소재 또한 매우 다양해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100년을 지나온 대한민국의 어린이청소년극의 성장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압축되었다가 올해를 시작으로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3년의 시간을 버티오면서도 이렇게 수준 높은 작품들을 만들어내 주신 창작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의 공식초청 선정작은 모두 7편입니다. 54편의 참가작 중에서 7편을 선정하는 일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작품으로서의 완성도가 뛰어난 작품, 창의성이 돋보이는 작품, 참신함과 새로운 시도, 고민과 실험으로 관객을 놀라게 하는 작품,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각 연령대를 다루는 속 깊은 이야기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작품뿐 아니라 그 작품을 만든 창작자들도 다양했습니다. 수십 년간 사명을 가지고 어린이청소년극을 만들어 오신 선배 창작자들의 내공,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등장해 놀라운 작품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신예들의 선전, 둘 사이의 중심에서 자기만의 개성으로 어린이청소년극을 이끌고 있는 다수의 창작자들, 이 모든 분들을 객석에서(비록 화면이지만)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감동했음을 고백합니다.

의례적인 심사평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드신 작품들 하나하나는 다 어린이들의 우주를 담고 있습니다. 그 우주를 엿보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예산의 한계로 많은 작품을 초청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축제에는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젊은 청년들의 서커스, 두 소녀의 섬세한 감정을 다루는 청소년극, 새로운 시도와 상상력이 돋보이는 어린이극, 전통에서 발굴해낸 소재를 갈고닦은 인형극, 판소리와 그림자극의 만남, 전통의 소재를 두 배우의 몸으로 해석해낸 신체극, 온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인형극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선정되지 못한 작품들, 더 나아가 축제에 참가 신청하지 않은 수많은 작품들에게도 같이 힘내자는 응원을 전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만나고, 작품을 만들고, 서로 응원하고, 영감을 주고받고, 연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냉정한 비판자로, 때로는 가장 가까운 친구로 곁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 관객이, 어린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대에 불이 켜지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축제의 주인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입니다.

2023년 7월 29일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예술감독 신인선  
심사위원 김형희, 장재키, 정승진, 윤종연